

**민속박물관**  
전환공간

여름 전환 장치

여름에 의한

시간들의, 공간들의, 생명들의, 사람들의  
소리

소리 벽

너머의 공간들

우:

논을 지나, 장터를 지나, 대장간을 지나,  
마을을 지나, 빨래터를 지나, 시냇가를 지나.

좌:

산속의 작은집을 지나, 밭을 지나, 대나무 숲을 지나,  
서낭당을 지나, 폭포들을 지나, 계곡들을 지나,  
강가를 지나, 물레방앗간을 지나, 바닷가를 지나.

# 여름

24절기의 입하(입하: 5월 31일부터 대서(대서: 7월 21일)까지 해당하  
는 기간으로 뜨거운 햇볕에 의해 농작물이 성장하는 시기이다.  
보내기와 김매기, 풀베기 등에는 고된 노동이 수반되는 만큼, 이때 나  
타나는 새김과 노동요, 풍속 등은 노동의 힘겨움을 함께 하는 즐거움  
으로 승화시키는 삶의 지혜였다. 김매기가 끝나고 나면 호미씻이와 더  
뽕이 흰 편 대동놀이도 있었다. 비릿기 위험에서: 강한 햇빛에 의해  
쇠갈이 팽글어갔다. 한낮 더위에 직한 사람들은 천일을 하거나 낮잠  
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하여 모시와  
삼베로 시원한 여름옷을 만들어 입었다.

# Summer

Summer (from May to July based on 24 seasonal divisions) is the best  
season for growing crops and making a good quality salt with  
plenty of sunshine. As it was the busiest farming season, with  
an occasional day of relaxation equally as important as working  
hard in the fields. Farmers had saecham, — even today farmers  
do this — a light meal between regular meals in the field, and  
they enjoyed singing songs while working. Also after the busiest  
season of farming, they hold the entertainment events for the  
whole community. Koreans in the past developed a way of  
staying cool in the summer heat by taking a nap, and wearing  
clothing made of ramie or hemp.















가을 전환 장치

가을의

수고한자들에 의한

숨을 쉬는

달

초가집과 기와집 사이 :

가정의 제단으로서의 장독대와

깊어가는 밤과

다소 커 보이는 심리적인

숨을 쉬는

달을

